

#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다주택 '초점'

### 양도소득세 강화·다주택자 금융규제·주택거래신고제·투기과열지구 지정·청약제도 개편 등 관심

정부가 오는 2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 투기규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6·19 대책에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19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과 청약 과열이 심해지는 등 효과가 미미해 두 달 만에 추가 대책을 꺼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으로 나뉜다. 양도세 증가는 2014년 폐지된 것으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갭투자를 방지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 부활도 관심사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액,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도입도 유력하다. 지난해 발표한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 도입될 것이라고 예정됐지만 시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막판에 도입이 취소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6·19 대책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

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가점제 비율은 확대의 경우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40%는 가점제로 뽑는데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풍선효과'로 청약이 불린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청약을 장려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오피스텔은 해당 지자체에 분양을 신고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등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조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검사장 탈락' 연수원 24기 거취 관심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막내 검사장'의 바로 아래 기수인 사법연수원 24기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검사장 인사에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태인데, 조만간 단행될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검찰 안락 얘기를 종합하면 이번 인사에서 23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25기인 윤대진 1차장 사이에 낀 24기가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검찰 고위급인사에서 24기는 일부가 검사장 승진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진입에 실패했다. 검사장 승진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동기인 23기까지로 이뤄졌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4기까지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관행에 따라 옷을 벗게 될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24기 검사들은 검사장 바로 아래 기수가 됐으며, 이후 인사에서 주요 차장급 검사 보직을 맡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24기 중에는 여환섭 대검 법무과부 선임연구관, 문찬식 순천지청장, 차명기 천안지청장 등이 주요 보직에 오를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온다.

다만 25기인 윤대진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발탁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결국 윤대진 1차장이 전격 임명되면서, 검사장 바로 아래이면서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은 24기 검사들이 애매한 위치가 된 것이다. /뉴시스

# 김춘진, 식약처 방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애로사항' 전달

### 인증 행정 전복에서 원스톱 처리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MOU 등 류영진 식약처장 '들겠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31일 세종시 식약처를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춘진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도운 도당 역량강화실장, 최희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장, 류영진 식약처장,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김장열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이 참석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있어서 GMP, HACCP, 자가품질위탁 사업 및 검사, 인증관련 행정이 전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참여 기업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경쟁력뿐만 아니라 연계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건의했고, 요건만 갖춰지면 협약체결을 하자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입주 기업들이 인근에서 실험도 하고, 인증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업무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GMP, HACCP 등 인증을 근거에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31일 세종시 식약처를 방문해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식품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성 식품과의 연계도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식품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배석한 실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공적인 전북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도움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천정배, 국민의당 당 대표 출마 선언

"강력한 선도정당, 개혁정당, 민생정당, 저 천정배가 책임지겠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1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당 중앙당 청담대회가 열렸던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을 밝혔다. 천 전 대표는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인재 회수분' 국민의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지도자는 선거 승리로 모든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목표가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 전 대표는 "당내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며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비율로 추천하고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년이 왜곡된 상상이나 장식품이 아닌 진정한 당의 주역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제도·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창당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1년6개월 전 했던 약속, 오늘 또 다시 드리는 약속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저 천정배에게 힘을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천 전 대표는 출마선언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흥어진 민심 복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좌고우면 할 필요 없이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서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한다"며 "이런(전대 이후) 정치국회 끝날 때쯤 저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다시 과거 적어도 작년 총선의(득표율인) 26.7%까지 올릴수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남원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